

지역 소식통

정읍생고을시장 이면도로 정비 완료

정읍시가 생고을시장 생활권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3월 생고을시장 일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 지구 도로를 생활권 이면도로로 지정하고 지난 5월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관련하여 시는 도·시비 각 1억원, 모두 2억원을 들여 차선·미끄럼 방지 도색과 함께 46개소에 안전표지판을, 695개소에 태양광 매립 표지병을 설치했다.

또 차량 제한 속도를 30km/h로 낮춤으로 보행자 안전 환경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고 생고을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고을시장 일대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특히 야간에는 도로가 좁고 어두워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협해 왔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사 스토리 전망대 완공

눈·코·입·목·가슴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누워 있는 여인의 모습 형성

용산호에 천년의 기다림, 백제가요 정읍사의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정자가 들어섰다.

도비 2억5000만원이 투입돼 건립된 정자의 이름은 '정읍사 스토리 전망대'다. 전통 한옥 형식으로, 34.6㎡ 규모다.

정자에 올라 내장산 망해봉과 불출봉 산등성이를 바라보면 여인의 형상이 눈에 들어온다. 눈과 코, 입, 목, 가슴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누워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정읍 사람들은 이 형상을 천년 여를 넘어 이어져 오고 백제가요 정읍사 속 여인이 환생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일설에는 깊고 간절한 사랑에 감동받은 하늘이 그 사랑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내장산 자락에 여인의 형상을 만들었다고도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정읍사 여인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연인들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지역 곳곳에 있는 '정읍사' 자원과 연계, 스토리텔링화해서 가요 속의 부여와 갈수록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현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관광자원으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정자는 2017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일환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지어졌다. 전라북도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군 단 도비 50억원을

지원, 전라북도를 단일 관광지로 하는 토달관광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 일원이 대표 관광지로 선정됨에 조선휘조실록 보존 터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지난해 시·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로, 약학계법(1493)에 고려가요와 함께 전해져 온다.

백제 정읍현에 사는 사람이 행상을 나간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가 남편의 안위를 기원하며 불렀던 노래이다.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망부석 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빵 비빔밥 관광객에 '극찬'

칼슘·철·인 등 50여 종의 미네랄·알라닌 등 풍부

부안군이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빵 비빔밥이 관광객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부안 대표음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빵 비빔밥은 칼슘·철·인 등 50여 종의 미네랄과 알라닌·아스파라긴산·세린·타이론 신 등 아미노산, 단백질이 풍부한 빵잎가루와 빵잎을 넣은 밥에 빵잎나물과 변산양파 등 나물류를 넣고 오리고 추장으로 비벼 건강음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별미를 맛보고 싶은 단체 관광객들에게 보고 좋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빵 비빔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3~14일에 부안을 방문한 충남 천안시 농촌지도자와 생활권 선의 임원 240명도 대명리조트 별산에서 하계연찬회를 개최하고 새

만급전시관, 누에타운, 내츨팜 등 부안참빵 6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부안의 맛과 멋을 배우고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부안의 대표 건강 밥상인 빵 비빔밥을 시식했다.

빵 비빔밥은 맛만 좋다면 많은 양을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음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며 "기존 비빔밥과 달리 고급스러운 대접받는 느낌이다. 부안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하남선소장은 "관광객들에게 빵 비빔밥 반응이 너무 좋아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음식점에서 맛 볼 수 있도록 레시피 전수와 기술 컨설팅에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비빔밥의 명성을 뛰어 넘는 대중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서, 하반기 역점추진사항 토론회

정읍경찰서(서장 김중화)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 팀장, 지구대 파출소장, 센터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치안성과 보고회 및 하반기 역점추진사항에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중화 정읍서장은 참석한 각 과장, 지구대 파출소장에게 고사성어인 책임자 심책기(責人之心責己), 서기지심서인(愆己之心愆人)을 인용하며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며 정읍시민을 대할 때도 내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한다면 치안성과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항상 정성을 다하는 치안활동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 진행

양성평등 확산 위해 대상에 김남호씨 수상



최근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출산 극복과 가정 내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제2회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대상에 수상한 김남호씨 작품.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최근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출산 극복과 가정 내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제2회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모전은 아이들이, 부모·가정·사회에 전파하는 행복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아빠의 육아참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확산하여 개인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고창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순간 ▷아빠와의 특별한 감동적인 순간 ▷언니오빠와 함께 하는 행복한 순간 등 3개 부분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총 143점이 접수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대상은 '아빠와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한 김남호씨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처음 염정을 찾은 아이가 소금을 맛보는 순간을 포착한 장면으로 작품명은 [오~~아빠~~찌:]이다.

최우수상은 김술 작 '석양이 물들

듯', 최유안나 작 '아빠와 꿈나라', 정혜원 작 '물다가 웃으면 웃음이 피어나요', 3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차진실 작 '형이좋아요', 오승일 작 '아빠와 교감 중', 김석곤 작 '조마조마', 박원미 작 '우리는 흥분', 정성남 작 '풍생아 너만 믿을 게' 등 5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만원, 최우수상 10만원, 우수상 5만원의 기프트카드가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요리프로그램

1회 무료이용권이 지급된다.

수상작품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월 이후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영유아 관련 각종행사와 홍보물 제작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은 셋째아 출산 1위 지역으로 다중이 부모들의 정보교류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자조모임 '아이러브 셋!' 지원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소방서,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신고식 실시

고창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본서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신고식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발령 인원은 총 16명으로 각 과 행정부서와 119안전센터로 배치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준식 소방서장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원 간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고 기본 임무와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나용성 부안보건행정팀장,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부안군 보건소 나용성 보건행정팀장이 군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건강증진, 예방 의학 등 다양한 의료사업을 펼쳐 활력 있는 부안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쏟고 있다.



92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나 팀장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군민을 위한 친절봉사로 차매관리사업과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에서도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를 올리며 전라북도 최고의 보건소로 자리잡아 군민의 건강과 행복권 추구에

초석을 다지고 있다. 특히 나 팀장은 전국 보건소 중 유일하게 농어촌형 모 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 군민에게 스마트 폰 앱, 활동계 등을 지급. 의료장비를 통해 측정할 혈압, 혈액검사, 영양식이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수행해 질병을 사전에 차단. 자기 건강관리로 노년기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발병률 감소에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나 팀장은 11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 관리 및 공중보건 의사 복무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 고액인 군민감동의 친절환 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군민의 보건향상에 앞장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